

2세에 108억 부당지급... 한국타이어 과징금 80억, 檢 고발

공정위 “회사 수직계열화 과정에서 계열사에 과다이익 제공에 제재”

부당지원 MKT 매출이익률 42% 경쟁사 대비 12.6%p 높은 수준 조현범·조현식에 108억 배당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정위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납품가격을 부풀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총수 2세에 100억원대 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스전웍스(이하 MKT)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 인수를 추진,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년 10월 31일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한국타이어

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켰으며, MKT 연평균 매출액 증가는 2008~2011년 144억7000만원에서 2012~2013년 197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타이어는 MKT의 이익을 보전

하기 위한 신단가 정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신단가 정책은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했는데, 이는 동종 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 정책도 함께 시행했다. 신단가표에 따른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은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 결과 MKT 매출이익률은 42.2%에

이르렀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p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지원으로 MKT가 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 MKT 합병 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억여원을 상환 완료했고, 2016년~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보, 혁신 중소기업 대만진출 돕는다

대만중소기업신보와 업무협약
창업·중기정책 교환 등 협력키로

기술보증기금이 우리나라 혁신 중소기업들의 대만 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기보는 대만중소기업신보보증기금과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혁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혁신·창업 정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와 대만SMEG는 2014년부터 보증정책에 대해 상호교류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온라인 실무자 세미나를 통해 양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창업·중기정책, 데이터 보증제도, 기술평가시스템 등 정보 교환 ▲상호 공동 연구 추진 ▲실무진 교류 및 세미나 개최 ▲혁신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보는 중소기업강국대만과의 정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천미순 대만중소기업신보보증기금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출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 개선,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만SMEG는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한 대만 경제부 산하기관이다.

대만SMEG 천미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과 운영 노하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향후 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기

정책을 상호공유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있다”며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만SMEG와 정보 공유를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납·카드뮴 등 화학물질 수입절차 통합

환경부, 일부 개정령안 15일 시행

오는 15일부터 납, 카드뮴 등 유독하면서 제한된 화학물질 수입 절차가 하나로 통합돼 산업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입허가 절차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간담회에서 이종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비용 및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된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코트라, 디지털 기업 글로벌진출 지원 나서

‘K-Global@ 실리콘밸리’ 행사 개최

KOTRA(코트라)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Global@ 실리콘밸리 2022’를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7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디지털 분야의 대표적인 ‘수출 더하기’ 해외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코트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 30개사와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 미국 현지 기업 150개사가 참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돼 국내기업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

코트라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디지털 산업 ‘수출 더하기’를

위해 수출상담회, ICT 혁신포럼, 스타트업 피칭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콘텐츠·플랫폼·AI·디지털 장비 등 국내 ICT 기업 30개사가 메타(Meta), 구글(Google), 애플(Apple), 엔비디아(NVIDIA),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 등 미국 현지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당신의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ICT 혁신포럼을 개최했으며,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칭대회를 진행했다.

정의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디지털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다”며 “KOTRA는 우리 ICT 기업이 실리콘밸리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IT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 지원

메가쇼 시즌2 박람회서 부스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메가쇼 시즌2’ 박람회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공동관을 운영한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리는 메가쇼는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 중 하나다. 휴먼라이프, 식품, 뷰티, 여행까지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를 이끌며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바이어들도 많이 찾는 행사다.

소상공인협동조합공동관은 ‘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64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소진공은 이번 메가쇼 시즌2에서

판매관 74개를 비롯해 홍보관 등 총 80개 부스를 운영한다.

행사 기간 중 3일 동안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축을 통해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 19가지를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고물가 극복 프로젝트’도 열린다. 7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으로 무료 택배 배송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메가쇼는 소상공인협동조합공동관으로 참여하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행사로 고품질의 알짜배기상품을 취급하는 협동조합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리모델링 완료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새롭게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 이후 국제선 재개와 고객중가에 따른 여객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해 10월 말 공사를 완료했다. 여객들이 오고 가는 터미널 대합실 바닥마감을 교체하고 천장을 도장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김포공항은 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공항으로 공사는 국제선 노선 재개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